피해야 할 설교

복음의 열정이 식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열정이 식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

단단한 음식

(히 5:12)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는 교회마다 젖을 먹이는 설교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유(母乳)가 아니라 성분을 알 수 없는 분유(粉乳)를 .....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목사 자신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성도들이 장성하여 자라는 것을 목사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셋째, 목사들이 성도들의 삶과 타협하기 때문이다.

목사 자신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연구가 부족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신학교육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사탄은 목사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거나 다른 재미에 탐익(貪溺)하게 함으로써 설교자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뺏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專務)하는 종을 원하신다.

일부 목사들은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상태에 머물도록 목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보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유아(幼兒)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미처 다 자라지 못한 미숙아(未熟兒) 성도들의 왕국(王國), 이것이 타락한 목회자들이 꿈꾸는 부흥이다. 마지막 날 주님은 말씀하신다.『불법(不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과 타협하는 이유는, 수많은 미숙아(未熟兒)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단단한 음식을 주면 성도들이 떠날까 염려한다. 목사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교인들을 길러내는 자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를 돌보는 종이다. 목사가 실족(失足)하면 사탄은 기뻐한다.

설교와 컴뮤니케이션 이론

설교자는 성도들과 원활하게 소통(疏通)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여러 일상사(日常事)를 설교 재료로 사용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컴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이론에 지나치게 함몰(陷沒)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컴뮤니케이션에 치중하면 말씀의 진수(眞髓)를 희석시키는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희석되어서는 안된다. 말씀에 물을 타는 것,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것, 그것은 죄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컴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선포(宣布)이며, 설득(說得)이 아니고 강권(强勸)이다.

(딤후 1: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피상적이며 표피적이고 상투적인 설교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는 거의 모든 교회의 설교가 말씀의 샘 그 깊숙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피상적이며 표피적이고 상투적인 설교가 만연하고 있다.

에스라처럼 성경을 연구하며 또 연구하지 않고는 말씀의 금맥(金脈)에 도달할 수 없고, 말씀의 깊은 보화를 파헤치지 않는 한 성도들을 유아(幼兒) 상태에 방치할 수 밖에 없다.

성도들이 어린 나이에 성장이 멈추거나 조로(早老)하게 되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

문맥을 살피지 않고 한 두 단어를 추출해 강론하는 설교

본문의 문맥(文脈)을 살피지 않고 한 두 단어를 추출해 강론하는 설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강해설교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상은 주제설교이다. 강해설교는 성경 전체의 맥락(脈絡) 및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본문의 깊이를 드러내고, 이를 통하여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설교이다.

주제설교를 위하여는 가장 적확(的確)한 본문을 택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주제를 이끌어내는 설교

본문에서 주제를 이끌어내어 주제 설교를 하는 것 보다는 말씀 그 자체를 파고드는 것이 좋다. 주제를 강조하느라 자칫 말씀에서 멀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주제 설교를 할 경우에도, 인간의 논리가 성경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말씀은 힘이 있지만, 사람의 논리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예화 설교

적절한 예화가 설교를 돕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이 예화만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설교는 재앙(災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화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여기에 예화 설교의 위험(危險)이 있다.

그러므로 예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더구나 사실과 다르게 예화를 가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설교자 개인의 경험과 가정사

설교자 개인의 경험과 가정사(家庭事)를 언급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하여 교훈하는 적용 중심의 설교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하여 교훈하는 적용(適用) 중심의 설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도들이 지나치게 규범적(normative)이고 도덕적인 강요를 받게 되어 자칫 복음의 정신을 잃고 율법주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설교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책임은 성경 본문의 참 뜻을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광맥(鑛脈)을 파고 또 파는 것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마디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자.

말씀의 은혜로 부흥을 사모하기보다

말씀의 은혜로 부흥을 사모하기보다, 각종 프로그램과 교구 관리, 교인 관리로 부흥을 시도하는 교회가 있다. 이는 주종(主從)이 어긋난 것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으키는 부흥은 일시적인 부흥, 사람의 부흥일 뿐,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말씀이 쏟아 부어지면 부흥은 따라온다. 그래도 부흥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면 차라리 그 부흥은 포기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내로써 씨를 뿌리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성도들을 웃기는 코메디 같은 설교

성도들이 재미있게 웃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미만 느끼고 은혜는 받지 못한다. 말씀은 기억되지 않고 코메디만 남기 때문이다. 이런 설교는 성도들을 허탈(虛脫)케 하며 무력(無力)하게 한다.

(눅 7:24)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눅 7:25)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눅 7:26)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눅 7:27)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지나치게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

지나치게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는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좌(左)로나 우(右)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이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강단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야 한다. 오직 말씀만이 거룩한 강단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각종 동영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꼭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교 시간에 세속 영화나 노래 장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같은 이유로 가수나 개그맨 등 연예인들이 강단에 서는 것도 금해야 한다.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이다.

설교와 강단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가 아니다.

(살후 2: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 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쓸모 없는 의원

(욥 13:4)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 없는 의원**이니라

(욥 21:34)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 16:2)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함성이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설교, 쓸모 없는 의원, 재난을 주는 위로자,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설교!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